

[종합·해설]

고병원성(인체 전염) AI(조류인플루엔자) 초비상

예방·치료제 턱없이 부족… 가축은 속수무책

<타미플루>

전북 익산시에서 사람에게도 전염되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이 확인되자 인접한 광주시와 전남도가 긴급방역체계를 기동하는 등 초비상이 걸렸다. 시·도는 고병원성인 AI의 인체감염을 막기 위한 예방 및 치료약품 확보와 예방 교육을 강화하고 가축 비상방역에 나섰다.

그러나 인체감염을 우려해 시·도가 확보하고 있는 AI 예방 및 치료약이 턱없이 부족하고, 닭이나 오리, 개와 고양이 등 가금류에 대한 예방백신이 전혀 없는 실정이어서 주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인체감염 치료약 확보 비상=고병원성 AI의 인체 예방 및 치료제는 스위스 로슈사의 '타미플루'가 가장 효과가 높은 것으로 인정돼 질병관리본부 및 자제별로 확보해 관리하고 있다.

광주·전남 인접지역에서 고병원성 AI가 발생함에

광주시·전남도, 긴급방역체계 가동·치료약 확보 총력

따라 유사시 닭·오리 등 축산농을 중심으로 예방 및 감염 치료를 위해 신속하게 공급해야 하지만 양적인 면에서 크게 부족하다

26일 현재 광주시가 확보하고 있는 타미플루는 1천 380명분, 전남도가 지난 2003년 나주에서 AI가 발생했을 때 축산농과 살처분 요원 등에게 공급하기 위해 400명분을 확보했던 것으로 알려졌으나 닭·오리농 가나 지역주민들을 AI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는 턱없이 부족한 양이다.

이에 대해 전남도 관계자는 타미플루는 질병관리본부의 방침에 따라 중앙방역처원에서 확보하고, 발생 지역에 3시간 이내 공급한다는 운용체계상 확보불량

만으로 문제삼을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관계자는 "AI가 확산돼 인체감염이 우려되면 질병관리본부가 해당지역에 타미플루와 방역인력을 최단시간 내에 공급하는 체계를 갖추고 있다. 이같은 방역 시스템의 특성상 자치체가 확보하고 있는 치료약의 양 때문에 문제가 크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한편 전남도는 익산시의 AI발생에 따라 예비비 2 억여원을 들여 타미플루 5천명분을 긴급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가축은 속수무책=닭·오리와 개·고양이 등 가축에 대한 AI예방백신은 아직까지 개발되지 않았다. 따라서 가축에 대한 AI예방책은 전무한 상태다. 이같은

실정에서 전남도 내 닭·오리 사육비중이 전국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해 우려는 더욱 크다.

26일 현재 전남도 내 닭 사육농가는 791호로 전국 닭 사육량의 11%인 3천95만여 마리를 기르고 있다. 오리의 비중은 더욱 높아 300농가가 전국의 절반에 가까운(49%) 440만여 마리를 사육하고 있다.

더욱이 전남지역은 AI의 매개체로 지목되고 있는 철새의 도래지가 넓게 분포해 발생 가능성이 큰데다, 전국에서 닭·오리의 사육 비중이 커 일단 AI가 전염되면 피해규모 또한 상상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이처럼 취약한 여건에도 불구하고 가축에 대한 예방책은 발생 인접지역에 방역초소를 설치하고 예찰이나 소독 등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 철새도래지인 고천암호, 순천만, 주암호, 영산호 등의 철새 배설물을 주기적으로 수거해 AI의 전염 여부를 파악하는



수준이다. 전남도 관계자는 "일단 AI가 발생하면 가축에 대한 예방이나 치료는 전혀 불가능하다. 따라서 AI 발생을 막기 위해 적극적인 예찰 및 소독, 철저한 농장관리가 매우 중요하다"라고 말했다.

/박차경기자 unipark@kwangju.co.kr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지난 22일 발생한 조류 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고병원성으로 확인된 가운데 26일 전북 익산시 함열읍 석매리의 한 양계농가 앞에서 중장비가 닭 살처분을 위해 땅을 파고 있다.

/연합뉴스

닭·오리 익혀 먹고 농장 종사자 예방접종을

■ 증상과 예방법

38도 이상 고열

인후통·기침 동반

지난 22일 전북 익산의 한 양계장에서 발견된 조류 인플루엔자(AI) 바이러스가 혈청형 H5N1의 '고병원성'으로 최종 판명됐다. 무엇보다 방역당국을 긴장시키고 있는 것은 고병원성 AI가 닭과 오리 등에 감염되면 거의 100%에 가까운 폐사율을 보이는 데다 사람에게도 전염될 수 있다는 점이다.

AI는 주로 주로 철새의 배설물이나 호흡기 분비물 등에 의해 전파되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발생이 잦다. 문제는 철새들의 경우 AI에 감염돼 저항성이 있어 증상이 나타나지 않지만 닭이나 오리와 같은 가금류에 AI가 전파되면 치명적이라는 점이다.

AI는 주로 주로 철새의 배설물이나 호흡기 분비물 등에 의해 전파되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발생이 잦다. 문제는 철새들의 경우 AI에 감염돼 저항성이 있어 증상이 나타나지 않지만 닭이나 오리와 같은 가금류에 AI가 전파되면 치명적이라는 점이다.

135종에 달하는 AI의 혈청형 가운데

H7N7, H5N1, H9N2 등의 '고병원성'

은 사람에게도 전염될 수 있기 때문에 더욱 위험하다. 이 중에서도 H7형과

H5형이 발생이 잦은데 2003년 겨울

부터 아시아 지역에서 유행하고 있는

H5N1인플루엔자와의 경우 지난 1997년

홍콩에서 인체 감염을 일으켜 18명이

감염되고, 이 중에서 6명이 사망했다.

◇AI의 증상=AI에 감염되면 감기

사하는 사람은 작업할 때 반드시 장갑과 마스크를 착용하고 작업이 끝난 뒤에는 반드시 목욕을 하도록 해야 한다. 또 항상 사육장을 청결하게 유지하고 자주 소독하며, 닭이나 오리가 이상 증상을 보이면 즉시 방역당국에 신고해야 한다.

AI는 조류의 분비물을 직접 만지는 경우에 주로 발생하기 때문에 최선의 예방책은 무엇보다 살아 있는 닭, 오리 등 가금류와 접촉하지 않는 것이다. 또 손을 자주 씻는 게 좋다. 물론 흡연과 음주를 자제하고 건강한 생활습관을 유지하는 것도 필요하다. 특히 유행지역 방문 여행객은 인플루엔자 환자와의 접촉을 피하는 게 좋다.

◇닭, 오리 농장 종사자 겨울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비법칙=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내년 4월까지 겨울 인플루엔자가 유행할 가능성이 크다고 한다. 겨울 인플루엔자는 절기에 따라 유행하는 것이다.

전문의들은 65세 이상 노인, 생후 6~23개월 된 소아 등 인플루엔자 접종대상자와 AI 인체감염 가능성이 높은 닭·오리 농장 종사자 등을 만일의 경우에 대비해 예방접종을 하는 게 좋다고 권장한다.

/연합뉴스

재산 피해를 입은 데 이어 2003~2004년 겨울 전국적으로 몰아친 AI 과정으로 매출이 급감하며 위기를 맞았다.

그러나 정부의 긴급 지원과 전국적인 닭고기 소비운동으로 가

공공장을 새로 짓고 매출도 회복세를 타 가까스로 위기를 넘길 수 있었다.

하지만 이번 AI는 본사 인근의 계약농가에서 발생했다는 점에서 과장이 훨씬 클 수밖에 없다. 하림

/연합뉴스

하림, 세번째 위기 계약농가서 AI 발생 조업 중단 가능성

조류 인플루엔자(AI) 바이러스가 고병원성으로 최종 확인됨에 따라 국내 최대 육가공업체인 하림이 세번째 위기를 맞고 있다.

AI 발생 농가가 하림의 계약농 가인네다 가공 공장이 발생 농가로부터 10km 이내의 경계지역에 위치하고 있어 최악의 경우 조업 중단 조치가 내려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26일 하림에 따르면 2003년 익산 본사의 대화재로 수백억원의

은 일간 AI 발생 농가로부터 10km 이내의 경계지역에 있는 계약농가와 사용규모가 18곳, 90여만 마리에 불과해 전체적인 수급에는 큰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또 철저한 위생관리와 방역 및 소독을 실시하고 있는 만큼 소비자들의 안전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벌써 매출이 급감하고 주가도 움직임을 보이는 등 시장의 반응은 심상치 않다.

/연합뉴스

최악판 반경 10km 이내 닭·오리 444만마리 살처분

지난 22일 전북 익산시에서 발생한 조류 인플루엔자(AI) 바이러스가 고병원성으로 확인됨에 따라 앞으로 진행될 살처분 규모와 농가에 대한 보상액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AI 발생에 따른 살처분 범위는 바이러스의 유입 시기와 확산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농림부와 협의해 결정된다. 하지만 1차적으로 AI가 발생

한 농가를 중심으로 반경 500m 이내 오염지역에 있는 닭, 오리는 모두 살처분 된다.

이같은 규정에 의해 익산에서 발생한 AI로 인한 살처분 대상은 발생 농가의 닭 1만 3천마리를 포함해 6농가에 모두 23만 6천마리이다.

그러나 바이러스 전파 가능성에 높다고 판단되면 위험지역인 반경 3km, 경계지역인 반경 10km

이내까지 범위가 대폭 늘어날 수도 있다. 익산에서 발생한 AI 농가 3km 이내에는 10농가 37만 1천마리, 10km 이내에는 187농가 444만 3천마리가 사육되고 있다.

살처분 대상 농가에는 종계와 육용계, 종란 등으로 나뉘어 시기에 준한 보상을 해준다. 종계는 산란용과 육용에 따라 1만 2천~1만 3천원대, 종란은 병아리 가격의 50% 가량이 될 전망이다. 여기에 살처분에 대한 농가 협조를 유도하기 위해 일정액을 추가로 지급할 수도 있다.

/연합뉴스

